



미 증시, 침체 불안 지속 등으로 약세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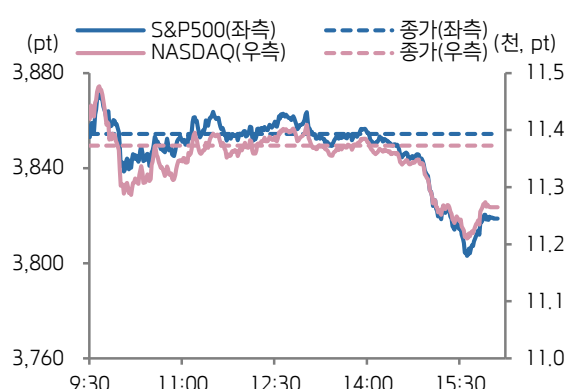
12 일(화) 미국 증시는 유로화가 달러 패리티 수준까지 하락하자 ECB 의 긴축 가속화 가능성이 부각되며 유로존 침체 우려 확산된 영향, 달러 강세로 인한 미국 기업 실적 악화 우려, 6 월 소비자물가지수 경계심리 등으로 하락 마감 (다우 -0.62%, S&P500 -0.92%, 나스닥 -0.95%, 러셀 2000 -0.22%).

유로화 가치는 장중 2002년 이후 처음으로 1달러를 하회. 러시아의 송유관 정비로 천연가스 공급이 중단, 에너지 위기가 가시화되며 침체 우려가 확대된 것에 기인. 이에 달러 인덱스가 108pt 를 상회하며 미국 기업들의 실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달러 강세 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EIA 월간보고서에서 7 월 가솔린 수요와 유가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영향으로 유가 8%대 급락하며 100 달러를 하회.

이날 발표된 주요 경제지표는 부진. 미국 6 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는 89.5(예상치 92.5, 전월치 93.1)로 발표되며 예상치 하회, 2013년 1월 이후 최저치. 코로나 19 팬데믹 당시보다 소기업들이 경기에 대해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해석. 독일 7월 ZEW 서베이 지표는 -53.8(예상치 -40.5, 전월치 -28.0)로 예상치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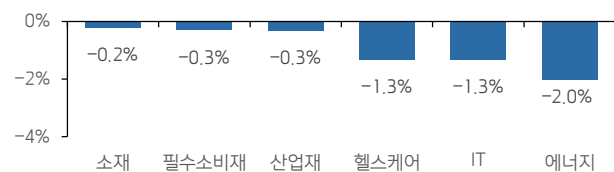
업종별로 전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소재(-0.2%), 필수소비재(-0.3%), 산업재(-0.3%)의 낙폭이 가장 작았고 에너지(-2%), IT(-1.3%), 헬스케어(-1.3%)의 낙폭이 가장 컸음. 유가, 미 국채 10년물 금리 하락으로 에너지, 금융주는 약세. 보잉(+7.42%) 2분기 항공기 인도 실적이 늘었다는 소식에 급등하며 코로나 19 재확산 우려로 조정 받았던 항공, 크루즈 업종에 저가매수세 유입. 테슬라, 리비안에 이어 마이크로소프트(-3.96%)의 인력 구조조정 소식이 전해지며 IT 업종 하락을 주도.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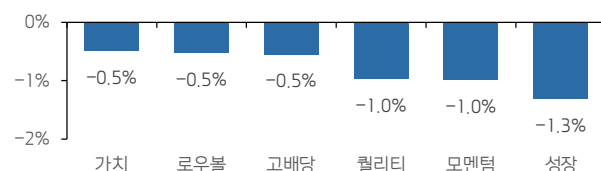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3,818.80	-0.92%	USD/KRW	1,312.44	+0.65%
NASDAQ	11,264.73	-0.95%	달러 지수	108.18	+0.14%
다우	30,981.33	-0.62%	EUR/USD	1.00	-0.02%
VIX	27.29	+4.28%	USD/CNH	6.74	+0.03%
러셀 2000	1,728.18	-0.22%	USD/JPY	136.84	-0.02%
필라. 반도체	2,558.17	+0.18%	채권시장		
다우 운송	13,171.95	-0.56%	국고채 3년	3.270	-5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3.335	-5bp
Eurostoxx50	3,487.05	+0.44%	미국 국채 2년	3.049	-2.3bp
MSCI 전세계 지수	596.10	-0.79%	미국 국채 10년	2.969	-2.4bp
MSCI DM 지수	2,572.33	-1.2%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981.15	-1.84%	WTI	95.84	-7.93%
MSCI 한국 ETF	56.58	-0.09%	금	1724.8	-0.4%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09%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38%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44%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306.2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6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거래일 급락에 따른 기술적 매수세 유입 가능성 2. 장중 한은 금통위 결과와 중국 6 월 수출입 지표 결과 3. 미국 IT 업종 약세에 따른 국내 관련 업종 주가 흐름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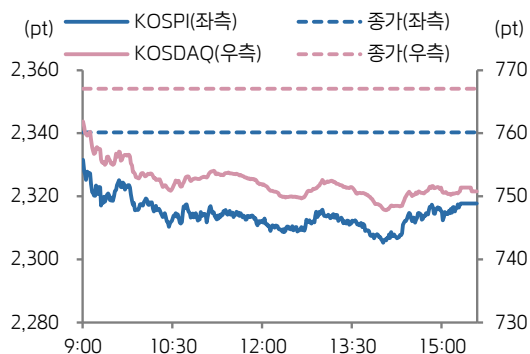
금일 밤에 발표될 미국 6 월 소비자물가지수 예상치는 최고 8.9%까지도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9.0%를 상회할 경우, 지난 5 월 소비자물가 쇼크와 유사하게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또한 에너지 위기가 가시화된 독일 6 월 소비자물가지수(예상치 7.6%, 전월치 7.9%) 발표 역시 예정되어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여지 존재.

전일 국내 증시는 보험, 의약품, 음식료, 통신업 등 경기방어주가 재차 강세를 보인 가운데, 중국 마카오 봉쇄 소식 여파 및 침체 우려로 항공, 레저, 섬유 의복 등 리오프닝, 경기민감 업종은 조정을 받음. 미국 물가지표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뚜렷한 방향성을 갖기 보단 제한된 흐름을 보일 것으로 판단. 해당 지표 확인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본격적 실적 시즌에 돌입하는 만큼 시장의 관심은 연준과 매크로에서 실적으로 이동할 전망. 전일 유로존 발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된 가운데, 유로화 약세, 달러 강세 환경에서 미국 기업들의 EPS 증가율 둔화 여부에 주목할 필요.

현재 한국(1.75%)과 미국(1.5~1.75%)의 기준금리 격차는 0.0~0.25%p. 금통위에서는 50bp 빅스텝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됐으며, 실현될 경우 4 월과 5 월 25bp 인상애 이어 사상 처음으로 3 번 연속 인상 단행. 이 배경에는 지난주에 발표된 국내 6 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동기 대비 6.0% 상승하는 등 물가 압력이 심각하다는 점, 7 월 미국 FOMC 에서 75bp 인상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미 금리차 역전에 대한 경계 심리 등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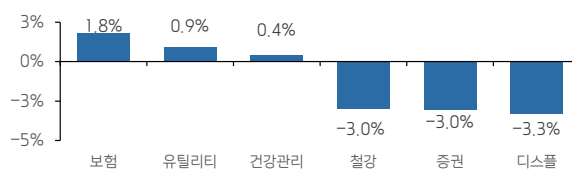
이러한 점들을 감안했을 때, 금일 국내 증시 역시 연준의 긴축 부담 속 미국 6 월 소비자물가지수 및 7 월 금통위 경계 심리에 영향을 받아 제한적인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장중 한은 금통위 결과와 중국 6 월 수출입 지표 결과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상존.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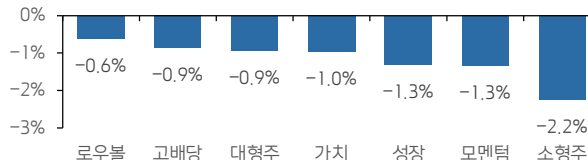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